

- 사생결단 기도회 열여섯 번째 -

괴롭히시는 성령님

66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4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75 여호와여 내가 알게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사편 119:66-75)

66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67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68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69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70 그들의 마음은 무더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71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72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73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충명도 주십시오.
 74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75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사편 119:66-75)

1. 하나님께서는 광야학교를 통해 우리를 **빛으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 A.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실수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진 상황, 그래서 걸어야만 하는 광야길을 하나님께서는 “광야훈련”의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 B. 광야학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셔서 언제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2.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 A. 안타깝게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여정을 통해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라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지닌 자들은 어떤 최악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모를 뿐 아니라,
 - B.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 사람은 젊었을 때에 명예를 메는 것이 좋으니
 28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매우셨음이라
 29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덮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30 자기를 치는 자에게 뱀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1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32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애가 3:26-33)

3.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지 않으려는** 본성이 문제입니다.
 - A.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것인데, 그 앞서가심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생명의 길, 사명의 길, 인생 행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참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 B.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예를 मे게 하십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매질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채찍질하십니다.

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14)

- C.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을 지우신 목적에 따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 D.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나, 결국에는 더 깨끗하고 흠이 없어 주인의 손에 쓰임을 받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 E.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를 가만히 내어 버려두는 것만으로도 삶은 결길로 가 버리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A.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B.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 C.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어딘가 안주하고 머무를 수 없습니다.
- D.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어야 합니다.
- E.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 분과 함께 살아감 자체가 삶의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 F. 그러기에,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만하면 족하다 여길 수 있는 시절이나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G.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더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분을 바라고 그 분을 더욱 의지하고자 함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 H.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 행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분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만족시키시고 나를 기쁘시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역사들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 I. 그리고 그 역사들과 일들이 궁극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 J. 그렇다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누릴 것이며, 그리하지 않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 자아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시들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광야학교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삶을 흔들며 **괴롭히**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요셉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광야학교를 졸업하여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5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25-30)

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별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후서 7:9-11)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의 실력과 능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허나, 나의 실력과 능력을 고려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셔서 젖을 먹는 수준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장성한 자로서의 순종의 자리에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셔서 감당케 하시면서 나의 실력과 능력을 길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력과 능력**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듯, 싸워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